

■ 연구원 소식

○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11월 24일)

지난 11월 24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른일곱분의 시민과 함께 전북지역 3·1운동 사적지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전주시 송천동에 자리한 전라북도 독립운동추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군산시 구암동에 자리한 군산 3·1만세운동100주년기념관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 익산 남부시장에 자리한 4·4만세운동 기념공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천식 박사께서 전 일정 동행하며 군산·익산지역 3·1운동에 관한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참군은 날씨에도 석해주신 많은 시민들과 후원해주신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독립운동 추념각 참배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탐방



익산 4·4만세운동 기념공원 탐방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 개

귀곡성에 실린 슬픔의 미학, 요절한 ‘귀재’ 이하(李賀)

『신당서』 소재의 「이하전」은 다음과 같다. 전문을 모두 소개한다.

이하의 자가 장길이다. 그의 가계는 정왕(鄭王)의 후예에서 나왔다. 일곱 살에 벌써 시와 문장을 잘했다. 한유와 황보식이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길에 들러, 이하에게 시 짓기를 시켰다. 이하가 거침없이 붓을 잡아 써내려가니, 평소에 지어놓은 듯하였다. ‘크고 화려한 수레가 찾아왔기에’라는 의미에서 「고헌과(高軒過)」라고 제목을 붙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이때부터 이하는 유명해졌다.

몸이 가냘프고 연약했으며, 양쪽 눈썹이 이어졌고, 손톱이 길었다. 글씨를 빨리 썼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허약한 말을 타고 어린 종을 데리고 다녔다. 등에다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메고 다니다가, 우연히 시를 얻게 되면 이를 적어 주머니 속에 던져두었다. 먼저 제목을 정한 다음에 시를 짓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처럼 제목에 맞도록 건강부회하는 일이 없었다. 저녁이면 돌아와 이를 완성시켰으니, 크게 취한 날이거나 상가에 조문하러가는 날이 아니면 대개 이처럼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종을 시켜 주머니를 뒤지게 하고는 써둔 시가 많으면, 곧바로 화를 내고 말하였다. “이 아이가 심장을 토해내야만 비로소 시 짓기를 그만두겠구나!”

그는 아버지의 이름이 진숙(晉肅)이었기 때문에 진사과에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유가 「휘변(諱辨)」이란 글을 지어 변호하였지만, 끝내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그의 시문은 기궤(奇詭)함을 숭상하였는데, 지은 작품들은 놀랍고 뛰어났다. 그리고 일반적인 작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시에 흉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악부 수십 편은 운소원(雲韶院)의 여러 악공들이 모두 음악에 맞추어 연주하였다. 그는 협률랑(協律郎)이 되었는데, 27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와 교유했던 권거(權璩)·왕삼원(王參元)·양경지(楊敬之) 등이 매번 이하가 시를 지을 때마다 가지고 갔다. 또한 이하가 일찍 죽은 탓에, 그의 시가는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다.

이번 주에 소개할 이하의 시는 「將進酒(장진주)」이다. 다소 퇴폐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 시는 짙은 색감을 염두해두고 감상해보면 좋을 것이다.

■ 작품 및 번역

將進酒(장진주 / 술잔을 바치며)

琉璃鍾琥珀濃(유리종호박농)

유리잔에 짙은 호박 빛 술

小槽酒滴眞珠紅(소조주적진주홍)

작은 통의 술 방울 진주처럼 붉어라!

烹龍炮鳳玉脂泣(팽룡포봉옥지읍)

고기 삶고 닭 굽자 옥 기름이 방울지고

羅幃綉幕圍香風(나위수막위향풍)

수놓은 비단 장막 향풍이 에워싼다.

吹龍笛擊鼉鼓(취룡적격타고)

용무늬 피리불고 악어 북 두드리자

皓齒歌細耍舞(호치가세요무)

미인의 노래에 가는 허리 춤추고,

況是青春日將暮(황시청춘일장모)

게다가 푸른 봄날이 장차 지려하는 판에

桃花亂落如紅雨(도화란락여홍우)

붉은 비처럼 어지럽게 떨어지는 복사꽃잎,

勸君終日酪酏醉(권군종일명정취)

그대에게 권하노니 하루종일 취하시게!

酒不到劉伶墳上土(주부도유령분상토)

술은 술꾼의 무덤까지 쫓아가진 않는다네.

■ 역사 속의 오늘

확률 1/8,145,060 환상이 시작되다(2002. 12. 07)

이 물건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부터 존재했고 동양에서는 BC 100년경 중국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건립기금으로 서양에서는 BC 63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복권이다.

로또(Lotto)는 이탈리아 말로 '행운'이라는 뜻이다. 원시적 형태의 복권은 중국의 진나라와 로마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나, 어느 정도 제도를 갖춘 복권의 형태는 빈민 구제 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15세기 프랑스 부르고뉴와 플랑드르 지방에서 나타났다. 복권의 발행을 통해 모금된 돈을 당첨금으로 주기 시작한 유럽 최초의 근대적 복권은 1476년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모데나에서였다. 이 복권은 제노바 로또의 모델이 되었고, 곧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530년 피렌체에서 번호선택식 복권인 'Lotto'라는 이름의 복권이 발행되었다. 이탈리아가 통일된 후인 1863년에는 국가의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이탈리아의 국영 복권사업이 시작되어, 거의 매주일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 일제의 태평양전쟁 자금마련을 위해 '승찰'이 발행되었고 해방 후 1947년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올림픽 후원을 위한 복권이 발행된 것을 공식복권의 효시로 보고 있다. 1969년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기 복권의 시작이었다. 2002년 12월 7일 번호선택제 방식의 복권판매가 시작되었다. 정식 명칭 《나눔Lotto 6/45》. '로또복권', '로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등 당첨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월도 가능해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왔고 기존 복권 시장을 초토화시키며 절대 강자로 등극했다.

400억이 넘는 당첨금을 손에 쥔 사람이 나타나며 선풍적 인기를 끌자 당국은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이월 횟수도 무제한에서 2회로 줄이게 되었다.(이 부분에 대해 복권 당첨으로 인한 졸부의 등장을 마뜩치 않게 여긴 주류사회가 일부러 1등 당첨금을 하락시켰다는 설도 있다)

로또의 당첨 확률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는 주사위 눈 맞추기 놀이를 통해서 간단히 체험해 볼 수 있다. 먼저 주사위 하나를 준비한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주사위의 눈인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말한 뒤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의 눈을 정확히

맞혔을 때에는 또 다시 숫자를 말하고 주사위를 2번째로 던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만약 첫 번째 던지기에서 숫자를 못 맞췄다면 당신은 5등에도 당첨되지 못한다. 만약 2번 연속으로 주사위의 눈을 맞췄다면 당신은 5등에 당첨됐다. 또 4번 연속으로 맞췄다면 4등에 당첨된 것과 비슷하고, 6번 연속으로 맞췄다면 3등에 당첨됐다. 마지막으로 8번 연속으로 맞힐 경우 2등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고, 9번 연속으로 주사위의 눈을 맞히면 1등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다.

1년이 약 52주 정도며 매주 10게임을 산다고 계산하면, 1년에 520회니 3등 당첨확률 $35,724/520=68.7$, 약 69년이 나온다. 당신이 매주 만 원씩 69년 동안 사면 확률적으로 1~2백만 원 받는 3등 한 번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69년간 총 구매비용은 약 3,588만 원이 들어가며 그리고 5,000원씩 매주 5게임을 산다면 3등 달성은 확률적으로 약 138년에 1번 당첨된다. 이걸 아예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3등이라도 된다는 보장조차 없을 것이다. 근성으로 당신 자식과 손자가 대를 이어가며 사면 가능하겠지만, 100년 이상 로또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어나 이게 성립된다. 그리고 2등은 135만 7,510게임 중 1회 당첨 확률이므로 1만 원씩 산다면 약 2,600년 동안, 1등은 814만 5,060게임 중 1회이므로 만 원어치씩 산다면 약 1만 5,600년 동안 사면 1번쯤 가능하다.

국내 로또 복권의 원금 대비 기댓값은 50%이다.(세전 기준, 1~3등 당첨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면 약 40% 언저리 쯤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또를 10,000원어치 구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당첨금 5,000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입하면 구입수익이 자기 쓴 돈의 절반을 날린다는 뜻이다. 로또복권 1장을 산다는 것은 1,000원을 주고 500원 짜리를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우리가 구입하는 복권의 수익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회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를 통해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1/8,145,060의 확률에 재미삼아 도전해보시라^^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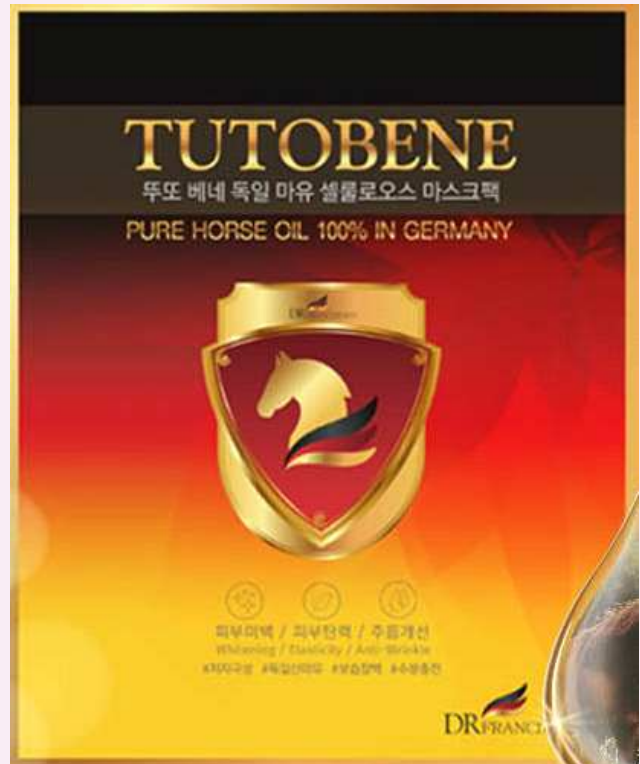
◎ 마유 팩 효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 시 중 가 : 1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마유팩 30g * 5매 >

- ◇ 시 중 가 : 4만 5천 원
-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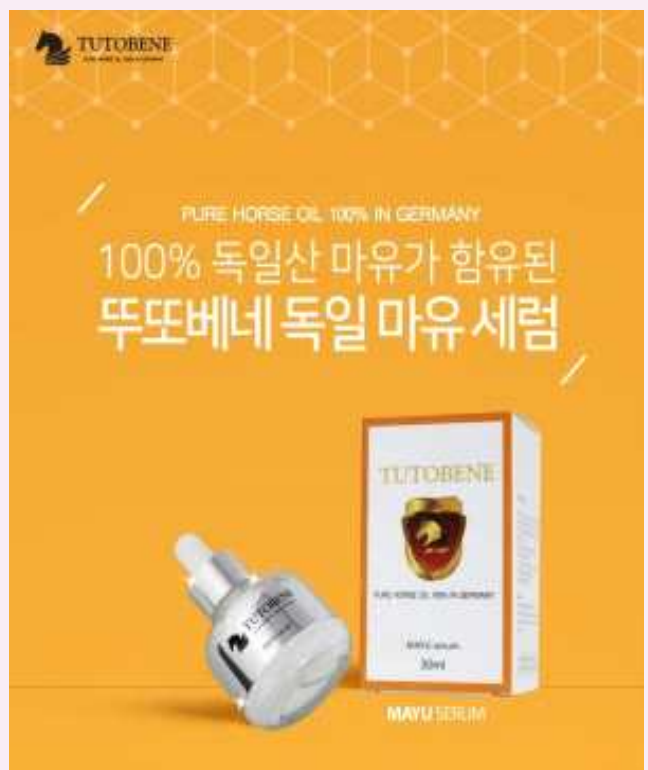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 시 중 가 : 2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 원

◇ 시 중 가 : 6만 9천 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 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